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민 지 애[†]

유 금 란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몰입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를 자아정체감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강원, 제주 지역의 대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진로결정몰입을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몰입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의 수준이 높았고,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의 수준이 높았다. 셋째, 자아정체감은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진로결정몰입

* 본 연구는 민지애(2012년)의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몰입의 관계'를 수정,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민지애,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29길 8, 110동 304호

Tel: 010-3483-3298, E-mail: sohwa0914@hanmail.net

진로발달이란 직업적 자아개념의 발달과정이며, 직업만족도는 자아개념을 실행할 수 있는 정도에 비례한다(Super, 1957). 그러나 최근 고용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평균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취업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한국의 대학생들은 자기이해나 진로결정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만한 여유를 갖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통계청, 2014. 7. 15). 또한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현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는 점점 더 막연하고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2013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청년들의 직업선택요인은 수입(37.1%), 안정성(28.4%), 자아성취(5.6%), 명예(2.7%)의 순서로 나타나, 청년들의 직업선택 기준은 자아실현보다는 수입과 안정성에 치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상담소의 상담고민 1순위는 진로상담이지만, 대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의지나 소망이 없거나, 원하는 것이 있어도 탐색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한국교육방송공사, 2011). 또한 구직준비를 위해 막연히 여러 분야에 대한 탐색만을 계속하거나(최수정, 정철영, 2007), 자신의 정체감과는 동떨어진 안정적인 직장만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이현주, 2008).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로정체감은 대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이현주, 2008), 대학생들이 진로정체감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발달이론가들은 진로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안감, 의심, 공포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외부환경에 대한 탐색과 자신의 진로계획에 대한 관여가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후기 청년기의 정체감 형성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Blustein,

Devenis, & Kidney, 1989).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필요한 발달과업인 진로결정몰입이라는 변인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맥락적, 심리적 영향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임에도,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부모와 대학생 자녀의 소통은 서로를 질책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부모와 대학생 자녀의 원활한 소통이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그 이유는 대학생 자녀가 자신에 대한 독특성을 자각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인 자아정체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 자녀가 진로결정과정에 몰입함으로써 성공적인 직업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모와의 소통방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급변하는 외부현실에 관심이 쏠리기 쉬운 현실 속에서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향상에 대한 관심제고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결정몰입

진로영역과 자신에 대한 탐색을 통해 진로목표를 구체화하고, 깊이 있는 관여를 통해 확신을 얻는 과정을 진로결정몰입(commitment to a career choice)이라 하며(Tiedeman & O'Hara, 1963, Marcia, 1993), 이는 잠정적 진로결정과 진로실행사이의 발달과업으로 강조되어 왔다(Blau, 1988; Harren, 1979; Jordaan & Heyde, 1979; Super, 1957). 따라서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직업적 선호가 환경적 요구와 내적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해 보고 이미 세운 진로목표를 구체화함으로써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관여의식을 확고히 할 것이 요구된다(이현주, 2008).

진로결정몰입은 정보를 수집하고, 숙고해 보며, 다양한 대안들을 경험해 보는 탐색활동을 통해 목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자신과 환경을

점검해서 진로목표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극복할 의도를 형성함으로써 성취된다. 이는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감 뿐 아니라 앞에 있을지도 모르는 난관에 불구하고 그 결정에 자신감과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Scott & Church, 2001). 진로결정몰입은 몰입이전단계에서 잠정적 몰입단계를 거쳐 몰입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자신의 진로결정에 높은 수준으로 몰입하는 개인은 환경과 자신에 대해 광범위한 탐색을 하여 진로목표를 구체화하고, 목표 달성에 뒤따를 잠재적인 장애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하게 됨으로써 진로결정을 실제로 적용하는 발달과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준비하게 된다(Harren, 1979; Jordaan & Heyde, 1979; Super, 1957). 반면에 이러한 몰입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어떤 시점에서 수용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배제한 채 직업생활에 나아가게 되면 직업적 만족과 성공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진로결정몰입의 이론적 중요성으로 인해 외국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Blustein, Ellis, & Devenis, 1989; Scott & Church, 2001), 국내에서의 진로발달연구는 주로 진로결정이나 진로성숙과 같은 변인에 중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진로결정은 향후 자신의 진로관련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뜻하는 개념이며(김지근, 이기학, 2011), 진로성숙은 진로 의사결정에 적합한 태도와 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Fouad, 1988: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윤정, 손진희, 강혜영, 김지현, 유정이, 임은미, 손은령, 2010에서 재인용). 진로결정몰입은 진로결정과정과 진로성숙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변인이며, 탐색과 관여활동의 반복적, 지속적, 심화적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 즉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점진적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변인들과 차이가 있다. 진로탐색 및 관여활동은 진로정체감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여러 경험들을 구별하고 개인과 사회의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분명한 자기맥락과 자신만의 독특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이현주, 2008).

진로결정몰입에 관한 국내연구는 최근 진로정체감과 연관성 및 가족변인과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겪게 되는 구체적 경험을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대안을 탐색하고 관여하는 시기동안 필연적으로 겪게 될 방향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충분한 탐색과 관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결국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만족스러운 직업선택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요인에 있어 가정환경 및 부모는 가장 영향력이 큰 존재임이 밝혀졌으며, 특히 교육과 직업의 전환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부모는 중요한 영향원이다(Dietrich & Kracke, 2009).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의 관계가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Blustein et al, 1991; 김지근, 이기학, 2011에서 재인용), 자녀의 진로 발달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공존한다(Scott & Church, 2001). 이는 부모와의 관계변인과 진로변인들의 다양성 및 연구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아직 부모와 대학생 자녀간 의사소통이 진로결정몰입에 대해 영향을 미침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없으며, 관련 연구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대학생 자녀의 자기주도성을 매개로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지근, 이기학,

2011).

대학생 자녀와 부모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진로결정과정에서 탐색과 관여를 해나가는 동안 대학생들은 과정상의 불확실함으로 인해 자기회의, 불안, 혼란감을 느끼게 된다(Foqua & Hartman, 1983; Blustein, 1988).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생각과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하고 정보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몰입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하며 이해하는 과정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김영애, 2010),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Rogers, 2009).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의 전달과 서로의 감정 교류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상호간의 이해를 중심으로 서로의 행위가 조정되는 과정이다. Barnes와 Olson은 원활한 소통은 최적의 가족기능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적 기능을 최적으로 이끌게 되므로, 부모-자녀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전달방식에 있어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자제하고 개방적 소통을 증진할 것을 강조했다(Paul Schrodt, 2005). 개방적 의사소통은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인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의사표현을 주저하고 주제선택에 조심하며 부모로부터 애정적 표현보다는 비난적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말한다(Barnes & Olson, 1982).

부모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자녀로 하여금 다양한 직업에 대한 탐색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진로를 효율적으로 선택하여 그에 몰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반면(Whiston & Keller, 2004),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부모의 의사소통의 반응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자녀는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진로결

정 몰입을 유예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Blustein, 1988). 취업을 앞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수정, 정철영, 2007)에서 비정서적 가족과정, 가족의 응집력과 유연성이 진로결정몰입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인지적 가족과정이 간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내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상호작용이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대학생 자녀간 의사소통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부모와 대학생 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대학생들이 진로결정과정에 몰입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하고자 한다.

자아정체감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심리적 특성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자기효능감, 결과기대(김순미, 2009), 자기주도성(김지근, 이기학, 2011)등이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외부적 경험의 내면화를 통해 내적 동기에 의한 진로탐색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최동선, 정철영, 2003).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자아정체감의 내용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아정체감으로 구성하여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침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발달과정으로서의 진로결정몰입에 착안하여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자아정체감으로 구성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정체감이 확고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흔들리지 않고 여러 진로대안들에 대해 탐색과 관여를 해나가는 몰입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진로결정몰입을 통해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실현할 진로목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며, 진로결정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자신

이 갖고 있는 자아정체감의 영향을 받게 된다 (Savickas, 1985). 행동할 기회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관된 기술을 이미 습득한 상태여야 하며, 기회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준비상태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Csikszentmihalyi, 2010). Csikszentmihalyi는 각 사람은 자신의 기질이나 기술에 맞는 도전을 발견하여 조금씩 다른 행동의 기회에 뛰어들게 되면서, 자신의 한계와 잠재력을 잘 알게 되고 더욱 독특한 인간이 된다고 한다.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영속성, 독자성, 불변성 및 이에 대한 의식적 감각을 말하며, 인생의 주기를 거치며 변화해 나가는 과정적 개념이다(Erickson, 1968).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 개념의 복합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서 박아청이 Erickson(1968)의 자아정체감 개념의 여러 측면들을 통합하여 제시한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이전의 발달적 위기를 잘 해결해 낸 것에 대한 결실 및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을 내용으로 하며 하위요인은 자기수용, 친밀감, 주체성, 주도성, 목표지향성, 미래확신성으로 이루어져 있다(2003).

자아정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타인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지각하며, 자기통합성과 일관성을 갖고자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아정체감에서 높은 수준을 획득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진로결정몰입을 관찰할 수 있고, 자아정체감 유예 단계에서는 진로결정몰입수준이 낮게 나타난다(Blustein, Devenis, & Kidney, 1989). 김창대(2002)는 흥미와 능력이 통합되는 순간을 찾아내어 진로영역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진로영역에서의 몰입의 경험을 찾거나 그 수준을 향상시켜 목표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진로를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한다.

최근 가족변인과 진로변인을 연결시키는 개인심리적 특성으로서 자아정체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진로발달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수용을 전제로 진로영역에서 자

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의 발현이므로(Tideman & O'Hara, 196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자아정체감의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업인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자아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자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발달하는 것이며, Erickson에 의하면 자아는 아동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발달해 가는 것이므로(프로이트 이후, 2002), 부모와의 소통은 정체감을 발달시킴에 있어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의한 영향을 받는 변인이자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나 진로결정몰입과 무관한 제3의 독립적인 변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은 양 변인에 대한 조절변인이 아닌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함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서의 자아정체감을 밝힘으로써, 심리적 과정에 초점을 둔 효과적인 진로지도나 정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관련연구로서 진로결정몰입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대학생의 환경 및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이 완전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지근, 이기학, 2011), 애착이 진로탐색효능감을 발달시켜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선, 2008). 즉, 부모와의 관계는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변인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자녀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수용하며 개별화와 통합을 거치면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도록 돕고(Erikson, 1968; 박아청, 2010; 김태연, 2011), 청년들이 친사회적 가치를 함양하고, 자신의 계획 및 결정능력, 대

인관계능력, 인내력 등의 사회적 유능성을 함양하도록 돕는다(Barbara, Holly, Francisco, & Bruce, 2008). 이러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이루어져왔으며(염미화, 2008; 정진선, 2009; 김태연, 2011; 김희수, 홍성훈, 윤은중, 2005; 이지민, 2009; 민하영, 1991),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및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교육경쟁으로 인해 입시위주의 초, 중, 고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자아정체감이나 진로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한국 대학생들의 현실이며(이현주, 2009), 최근 진로목표달성을 위한 준비기간이 길어져 대학생들이 부모의 지지와 경제적 협조를 받게 되는 기간 역시 길어지는 상황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대학생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진로발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독특성을 자각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대학생들이 진로결정과정에 몰입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와 대학생 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정체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최수정, 정철영(2007)은 가족변인은 수많은 변인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가족환경을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비정서적 가족과정, 인지적 가족과정, 응집성과 적응성으로 나누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월수입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인 부모의 학력, 수입의 영향력이 진

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통제하였다.

진로탐색 및 관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들이 더 많이 진로탐색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현주, 2008), 여학생들이 더 많은 진로준비행동을 한다는 관련연구가 있는가 하면(Blustein, Ellis, & Devenis, 198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원활성은 성별에 관계없이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Blustein, 1988)도 존재한다. 학년 역시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유의미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이현주, 2008), 학년도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요인이라는 연구가 존재한다(Blustein, Ellis, & Devenis,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년의 영향력이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통제하였으나,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결정몰입에의 모형검증에 관한 연구(김지근, 이기학, 2011)에서 측정변인간의 성차가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에 근거해서 남녀를 분리하여 고찰하지는 않았다.

연구목적 및 가설

그동안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물고, 세 변인을 동시에 다루면서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과의 관계를 자아정체감이 매개함을 밝힌 선행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최수정, 정철영, 2007; 이현주, 2008)에서 제시한 성별, 학년, 월평균수입, 부모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우선 진로발달의 가족환경적 요인으로서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수준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인심리적 요인으로서 자아정체감의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끝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

로결정몰입과의 관계를 자아정체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자아정체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진로결정몰입에 의미를 가지는 근거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확인하며, 진로결정몰입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 및 주목해야 할 자아정체감의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진로상담과 부모교육에 있어서 진로발달을 위한 구체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몰입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는가?

(가설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은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몰입은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를 자아정체감이 매개하는가?

(가설 3) 자아정체감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을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2012년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서울, 강원, 제주 지역의 4년제 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해 주신 분께 설문조사를 부탁하여, 강의시간 전후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325부 중 한 면 이상 응답을 누락하였거나, 모든 문항에 동일한 응답을 한 불성실 응답 설문지 17부를 제외한 후 30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

자 연령의 평균은 20.51세며, 표준편차는 2.63이다.

가족관련 특성에 있어서 두 분 모두 생존한 경우가 290명(94.2%)으로 가장 많고, 아버지 학력은 대졸이 140명(45.5%), 고졸이 121명(39.3%) 순으로,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165명(53.6%), 대졸이 102명(33.1%)순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수입은 200-299만원이 67명(21.8%), 300-399만원이 63명(20.5%), 500만원이상이 56명(18.2%), 400-499만원이 52명(16.9%)순으로 100만원대에서 500만원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 지역은 서울지역이 104명(33.8%), 강원지역이 115명(37.3%), 제주지역이 89명(28.9%)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성별은 여자가 230명(74.7%), 남자가 77명(25%)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으며, 학년은 1학년이 100명(32.5%), 2학년이 98명(31.8%), 3학년 50명(16.2%), 4학년 59명(19.2%)으로 1, 2학년이 3, 4학년보다 많으며, 전공은 인문대가 124명(40.3%), 사범대가 105명(34.1%), 사회과학대가 28명(9.1%), 예체능이 20명(6.5%), 이공대가 19명(6.2%), 상경대가 6명(1.9%)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집은 성별에 있어서는 여학생에 편중되어 있고, 전공별로는 인문대와 사범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진로결정몰입(VECS)

Blustein(1989)이 Super(1957)의 진로 구체화이론을 기초로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이론적 틀을 확립하고, Blustein, Ellis, & Devenis(1989)가 진로탐색 및 몰입척도(VECS;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cale)와 배제경향 검사도구(TTFS; Tendency to Foreclose Scale)를 내용으로 하는 진로결정몰입검사도구(Commitment to Career Choices Scale)를 개발하고 최수정이 번안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하나인 진로탐색 및 몰입척도(VECS;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cale)만을 측정도구로 삼았으며, 이는 진로결정 몰입을 위한 탐색정도의 연속적인 상태 파악이 가능하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직업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한 직업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고 열중할 만큼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정한 직업을 선택해서 열중하는 것이 힘들다' '어떤 직업에 완전히 집중할 만큼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등이 있다. 총 19문항으로 각 문항은 7점 Likert 평정 척도로서 Blustein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1이었으며, 최수정(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이다. 진로결정몰입 검사도구에서 배제경향 검사도구(TTFS; Tendency to Foreclose Scale)를 배제한 이유는 TTFS는 진로결정에 폐쇄적이고 경직된 방법으로 몰입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탐색없이 사전에 진로영역을 결정하여 몰입한 경우도 몰입의 점수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최수정, 정철영, 2007), 자아정체감의 발현의 과정으로서 충분한 탐색을 전제로 하는 진로결정몰입의 수준을 측정하려는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측정도구(PACI)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척도(PACI; Parents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는 Barnes와 Olsen이 1982년 개발하고 민혜영이 1990년 번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각각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적 의사소통'의 내용으로는 '나는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한다' '부모님은 항상 내 얘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신다' '부모님께서 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부모님께서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나는 부모님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잘 표현한다' 등이 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내용으로는 '때때로 나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나는 부모님께 말씀드릴때 조심스러운 편이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실 때 모욕감을 주신다' '나는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평정 척도로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민혜영(199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계수는 .85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5 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수준이 높음은 개방적 소통을 많이 하고 역기능적 소통을 적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정체감 측정 도구(KAES)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KAES; Korean Adolescent Ego-identity Scale)는 박아청이 1996년 자아정체감 개념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정체감 발달의 모습에 대한 연구를 통합한 다차원적 자아정체감을 개발하고, 2003년에 타당화 작업을 한 것이다. 하위요인은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6가지로 각 10문항씩 총 6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정체감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6이다. 자아정체감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자각하면서, 자기일관성 내지 전체감을 갖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변인들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통제된 후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통제한 후에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를 자아정체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대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자녀 의사소통과 모-자녀 의사소통은 상관성이 높아($r=.787, p<.001$)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을 아버지 개방적 의사소통과 어머니 개방적 의사소통 점수를 합해서 개방적 의사

소통으로 만들고, 아버지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어머니 역기능적 의사소통 점수를 합해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두 하위요인을 가지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역산 점수와 개방적 의사소통의 점수를 합하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점수를 산출 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들간 상관관계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정체감, 진로결정몰입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했다. 분석 결과, 부

표 1. 주요변인들간 상관분석

	의사 소통	개방적 의사 소통	역 기능적 의사소통	자아 정체감	주체성	자기 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 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진로 결정 몰입
전체 의사소통	1										
개방적 의사소통	.923***	1									
역기능적 의사소통	-.845***	-.577***	1								
전체 자아정체성	.391**	.344**	-.353**	1							
주체성	.269***	.295***	-.164**	.785***	1						
자기수용성	.424***	.359***	-.404***	.813***	.574***	1					
미래확신성	.272***	.256***	-.226***	.771***	.568***	.542***	1				
목표지향성	.326***	.278***	-.307***	.884***	.691***	.687***	.636***	1			
주도성	.255***	.191***	-.280***	.849***	.614***	.588***	.539***	.738***	1		
친밀성	.336***	.289***	-.309***	.727***	.419***	.526***	.399***	.537***	.613***	1	
진로결정 몰입	.307***	.254***	-.302***	.731***	.499***	.500***	.807***	.666***	.611***	.416***	1

*** $p < .001$.

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하위요인인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아정체감 및 하위요인인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그리고 진로결정 몰입과의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다른 변인들과의 부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더불어, 자아정체감의 점수 및 그 하위요인들도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점수 및 그 하위요인들뿐만 아니라 진로결정몰입과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점수를 역산하여 개방적 의사소통 점수와 합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점수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몰입 점수를 준거변인으로 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이때 예측변인에 의한 영향력 외에 준거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인 성별, 학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정 월평균 수입은 1단계에서 먼저 투입하여 통제한 이후에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이 진로결정몰입을 설명하는 정도는 5.4% ($R^2 = .054$)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들 중 성별 ($\beta = -.157, p < .05$), 가정 월평균 수입($\beta = .156, p < .05$)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남학생들일수록, 가정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았다.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2단계에서 투입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진로결정몰입을 설명하는 정도는

표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절차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β	t
1단계	진로결정몰입	성별	-.324	.126	-.157	-2.572*
		학년	-.038	.048	-.048	-.798
		아버지 학력	.109	.081	.094	1.340
		어머니 학력	-.077	.092	-.060	-.837
		가정 월평균 수입	.098	.041	.156	2.415*
		$F_{(5, 273)} = 3.116, p < .01, R^2 = .054(\text{adj}-R^2 = .037)$				
2단계	진로결정몰입	성별	-.332	.120	-.160	-2.755**
		학년	-.032	.045	-.040	-.708
		아버지 학력	.056	.078	.049	.721
		어머니 학력	-.053	.088	-.041	-.599
		가정 월평균 수입	.077	.039	.122	1.971*
		부모-자녀 의사소통	.437	.083	.302	5.267***
$F_{(6, 272)} = 7.475, p < .001, R^2 = .142(\text{adj}-R^2 = .123)$						

*p < .05, **p < .01, ***p < .001.

8.8%($\Delta R^2 = .088$)였다. 더불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 = .302, p < .001$). 즉,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 수준도 높았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결정몰입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해 5.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의해 8.8% 설명됨을 의미한다.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아정체감 점수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몰입 점수를 준거변인으로 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때 예측변인에 의한 영향력 외에 준거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1단계에서 먼저 투입하여 통제한 이후에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이 진로결정몰입을 설명하는 정도는 5.4%

($R^2 = .054$)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통제 한 상황에서 2단계에서 투입한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몰입을 설명하는 정도는 52.0%($\Delta R^2 = .520$)였다. 더불어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 = .732, p < .001$). 즉,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 수준도 높았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결정몰입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해 5.4%, 자아정체감에 의해 52% 설명됨을 의미한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절차로는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자녀

표 3.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절차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β	t
1단계	진로결정몰입	성별	-.324	.126	-.157	-2.572*
		학년	-.038	.048	-.048	-.798
		아버지 학력	.109	.081	.094	1.340
		어머니 학력	-.077	.092	-.060	-.837
		가정 월평균 수입	.098	.041	.156	2.415*
$F_{(5, 273)} = 3.116, p < .01, R^2 = .054(\text{adj-}R^2 = .037)$						
2단계	진로결정몰입	성별	-.177	.085	-.085	-2.077*
		학년	-.058	.032	-.073	-1.808
		아버지 학력	.085	.055	.073	1.556
		어머니 학력	-.072	.062	-.056	-1.171
		가정 월평균 수입	.033	.028	.052	1.191
		자아정체감	1.186	.065	.732	18.241***
$F_{(6, 272)} = 61.207, p < .001, R^2 = .574(\text{adj-}R^2 = .565)$						

*p < .05, ***p < .001.

간 의사소통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몰입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야 한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매개변인인 자아정체감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지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매개변인인 자아정체감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때, 1단계에 비해서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

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는지를 살펴본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고, 회귀계수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유의하다면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Sobel 검증을 통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추가로 검증하였다.

이때, 모든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인인 인구통

표 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절차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β	t
1단계	진로결정몰입	성별	-.332	.120	-.160	-2.755**
		학년	-.032	.045	-.040	-.708
		아버지 학력	.056	.078	.049	.721
		어머니 학력	-.053	.088	-.041	-.599
		가정 월평균 수입	.077	.039	.122	1.97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437	.083	.302	5.267***
$F_{(6, 272)} = 7.475, p < .001, R^2 = .142(adj-R^2 = .123)$						
2단계	자아정체감	성별	-.131	.072	-.102	-1.809
		학년	.022	.027	.044	.795
		아버지 학력	-.024	.047	-.034	-.512
		어머니 학력	.017	.053	.021	.314
		가정 월평균 수입	.037	.023	.096	1.59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367	.050	.411	7.387***
$F_{(6, 272)} = 10.654, p < .001, R^2 = .190(adj-R^2 = .172)$						
3단계	진로결정몰입	성별	-.177	.085	-.086	-2.072
		학년	-.058	.032	-.073	-1.802
		아버지 학력	.085	.055	.073	1.537
		어머니 학력	-.072	.062	-.056	-1.166
		가정 월평균 수입	.033	.028	.052	1.18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002	.064	.001	.027
		자아정체감	1.185	.071	.731	16.606***
$F_{(7, 271)} = 52.271, p < .001, R^2 = .574(adj-R^2 = .564)$						

*p < .05, **p < .01, ***p < .001.

계학적 특성들은 이전 분석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후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표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단계는 제외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정체감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진로결정몰입을 설명하는 정도는 총 57.4% ($R^2 = .574$)였다. 매개효과 검증의 1단계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 = .302, p < .001$), 2단계에서도 독립변인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매개변인인 자아정체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11, p < .001$). 3단계에서 종속변인인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매개변인인 자아정체감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반면($\beta = .731, p < .001$), 독립변인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도 높아지며,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1단계에 비해 3단계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302에서 .001로 감소함과 동시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이 매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단계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이 유의했던 것에 비해 3단계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자아정체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추가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Z값이 6.719($p < .001$)로 나타나, 자아정체감의 완전 매

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필요한 발달과업인 진로결정몰입이라는 변인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맥락적, 심리적 영향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부모와 대학생 자녀의 원활한 소통이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그 이유는 대학생 자녀가 자신에 대한 독특성을 자각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인 자아정체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정체감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을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가설을 중심으로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부모와 대학생 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은 유의한 정적인 영향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와 역기능적 소통을 적게 하고 개방적 소통을 많이 하여 원활하게 소통할수록 대학생들은 진로결정과정에 심리적으로 집중하여 탐색과 관여활동의 수준을 높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수정, 정철영, 2007)에서 비정서적 가족과정과 인지적 가족과정이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며, 부모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자녀로 하여금 다양한 직업에 대한 탐색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진로를 효율적으로 선택하여 그에 몰입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Whiston & Keller, 2004),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부모의 의사소통의 반응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진로결정 몰입을 유예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보고와 일치한다(Blustein, 1988).

의사소통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역기능적 소통이 개방적 소통보다 진로결정몰입과의 상관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 중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더 큰 관련성이 있었던 것은 부모의 진로관련 지지보다는 간섭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이현주, 2009)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와 대학생 자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대학생들이 진로결정과정에 몰입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 변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 자녀들의 진로문제에 도움을 주려는 부모들에게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자아정체감의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몰입은 유의한 정적인 영향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두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으며,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대학생들은 자신의 독특성을 자각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할수록 진로결정과정에 심리적으로 집중하여 탐색과 관여활동의 수준을 높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러한 자아정체감에서 높은 수준을 획득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진로결정몰입을 관찰할 수 있고, 자아정체감 유예 단계에서는 진로결정몰입수준이 낮게 나타난 바 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Blustein, Devenis, & Kidney, 1989). 또 청년 후기의 탐색활동은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자기개념이나 정체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신과 환경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의 수단(Jordaan, 1974; Waterman, 1985)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수용성, 주체성, 친밀성 순으로 진로결정몰입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확신성과의 정적인 상관은 선행연구에서 외적인 고용환경(2003, 최동선)이나 결과기대(김순미, 2009)가 높을수록 진로탐색활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주도성과 주체성과의 정적인 상관은 선행연구에서 자기주도성(김지근, 이기학, 2011)과 자기효능감(김순미, 2009)이 진로결정몰입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결국 대학생들은 자신이 실현해 나갈 미래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확신하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실현해 낼 의지가 많을수록, 여러 진로대안들을 탐색하고 관여하는 활동 속에서 시행착오와 혼란을 견뎌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자신의 독특함을 자각하고 이를 진로영역에서 실현해 내고자 노력하는 움직임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몰입에 중요한 심리적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급변하는 외부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주관적 감각을 신뢰하고 위치를 만들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아정체감이 완전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을 매개할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부모와 대학생 자녀간 의사소통은 자아정체감의 매개를 통해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수록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향상되고, 자아정체감 수준이 향상될수록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이는 김지근, 이기학(2011)의 진로결정몰입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이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환경 및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행동

과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며, 박은선(2008)의 연구에서 애착이 진로탐색효능감을 발달시켜 간접적으로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몰입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진로결정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 뿐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자아정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을 자아정체감이 매개함이 확인된 만큼, 평소에 가정에서는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여 대학생들이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즉 부모와의 역기능적 소통을 적게 하고, 개방적 소통을 많이 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여러 경험을 하면서 느껴지는 자신의 독특함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자아정체감과 상관이 개방적 의사소통의 자아정체감과 상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만이 자녀의 자아 정체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거나(김성일, 김남희, 2001),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만이 자기효능감과 상관을 보인 것(김희수, 홍성훈, 윤은중, 2005)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가 초, 중, 고, 청소년이 아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모와의 분리, 개별화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몰입을 향상시키는 매개변인이 밝혀진 만큼,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높여서 대학생들이 진로결정몰입에 나아가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이나 상담 현장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대학생들의 심리적 요소인 자아정체감을 변화시키는 개입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원선(1989)은 진로가 희망적이고 정보 수준이 적절할 때, 진로의식이 성숙해진다고 한바 있다(이현림, 김순미, 2007에서 재인용). 따라서 자신의 정체감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로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로결정몰입에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로상담에서는 일상에서의 몰입의 경험을 찾아내어 흥미와 적성을 진로영역에 연결시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김창대, 2002). 또한 사회적으로는 청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직업체험기회를 마련하여,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로영역에 대한 탐색과 관여활동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설정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진로결정몰입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입과 성별이었다. 가족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가정월평균수입이 많을수록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월수입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최수정, 정철영, 2007). 월평균수입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있을수록 진로목표달성을 위한 탐색과 관여시기의 불안과 경제적 압박감이 줄어들고, 경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부모학력은 진로결정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최수정, 정철영, 2007)와는 차이를 보였다.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남학생들일수록 진로결정몰입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남학생들이 진로탐색 및 관여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고(이현주, 2008), 여학생들이 더 많은 진로준비행동을 한다는 관련연구(Blustein, Ellis, & Devenis, 1989),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의 원활성은 성별에 관계없이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Blustein, 1988) 및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결정몰입에의 모형검증에 관한 연구(김지근, 이기학, 2011)에서 측정변인간의 성차가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과는 다르다. 남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목표에 매진하여 지속적인 탐색과 관여활동에 집중하는데 반해, 여학생들은 가정 상황이나 미래의 결혼이나 육아등의 여러 역할상의 부담이 진로결정과정에 몰입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의 표집은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인문계와 사범계에 편중되어 있는데, 여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목표에 따른 전공선택을 하기보다는 전통적 여성 직업에 대한 가족 및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 전공을 선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허보연, 김봉환, 2012). 성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년은 진로결정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탐색활동이나 진로준비행동 등 자신의 장래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한 선행연구와는 다르다(Blustein, Ellis, & Devenis, 1989), 학년이 진로탐색 및 관여활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이 아니라고 한 선행연구와는 일치한다(이현주, 2008). 진로결정몰입은 외적인 진로준비행동이나 단기간의 진로탐색활동과는 달리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탐색과 깊이있는 관여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서 학년에 따라 외적 압박감이 높아진다는 것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가족의 수입은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적 요인이며, 성별 역시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적, 성별적 요인으로 인해 진로결정과정에서 탐색과 관여활동을 하는데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경제적 취약계층

과 여성들의 진로활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정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부모와 대학생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대학생의 확고한 자아정체감이 대학생들이 진로결정과정에 몰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소통은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진로결정몰입을 도움을 밝힌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인 진로결정몰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해 부모와 대학생 자녀와의 바람직한 소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함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부모와의 소통의 영향 및 그 근거에 대한 탐색적 고찰을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하위요인,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별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영향력을 고찰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연구에서 의사소통이나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의 진로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후속연구에서는 하위요인별 영향력을 비교하여 구체적 고찰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관련연구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 각각의 개방적, 역기능적 소통으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표집은 3개 지역 소재 대학생에 한정되어 있고, 전공계열도 사범대와 인문대에 치중되어 있으며, 성별이 여성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좀 더 다양한 연구대상을 통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남녀를 분리하여 고찰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성별의 진로결정몰입에 대

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추후연구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을 각각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를 자아정체감이 매개하는지 탐색적으로 고찰함에 그쳤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등의 분석방법을 통해 완전매개와 부분매개의 모형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성차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다면 각 변인간의 관련성이 좀 더 명확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성일, 김남희 (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 정체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4(1), 75-89.
- 김영애 (2010). 사티어의 병산의사소통방법.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김원선 (1989). 진로성숙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대 (2002). 몰입이론을 적용한 진로상담 모형. 청소년상담연구, 10(1), 5-30.
- 김순미 (2009).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 관계분석.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 김지근, 이기학 (2011).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결정에의 몰입의 모형 검증: 자기성장 주도성과 환경에 대한 진로탐색행동 및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2(1), 81-97.
-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윤정, 손진희, 강혜영, 김지현, 유정이, 임은미, 손은령 (2010). 진로상담이론-한국내담자에 대한 적용. 학지사.
- 김태연 (2011).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성격요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수, 홍성훈, 윤은중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37-65.
- 민하영 (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혜영 (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 (2005). 청년과 아이덴티티. 박영사.
- 박아청 (2010). 에릭슨의 인간이해. 교육과학사.
-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학회지, 17(3), 373-392.
- 박은선 (2008). 아버지 애착과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염미화 (200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초등학교의 내외통제성,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 김순미 (2007). 중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지각된 부모 지지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6(3), 25-43.
- 이현주 (2008). 개인적 특성과 진로정체감간 관계에서 진로탐색활동수준의 효과: 일부 지역소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1(3), 119-135.
- 이현주 (2009).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성역할 태도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5(3), 79-102.
- 이현주 (2008). 대학생의 성별 및 사회불안 수준에 따른 진로개방성, 진로탐색활동, 진로정체감의 차이. 교육학연구, 46(1), 79-99.
- 이지민 (200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청소년의 학교적응간의 관계구조. 한국생활과학지, 18(5), 1021-1032.
- 정진선 (2009). 가족응집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정 (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몰

- 입과 가족변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정, 정철영 (2007).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몰입과 가족변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2), 161-183.
- 최동선, 정철영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요인 및 애착의 관계분석. *직업교육연구*, 22(1), 115-143.
- 통계청 (2013). 청년들의 직업선택요인.
- 통계청 (2014). 경제활동 인구조사.
- 한국교육방송공사 (2011). 다큐프라임. 나는 꿈꾸고 싶다.
- 허보연, 김봉환 (2012). 개념도 방법을 통한 여자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탐색. *한국상담심리학회*, 24(3), 621-639.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bara, D. Hillaker, Holly, E. Brophy-Herb, Francisco, A. Villarruel, & Bruce, E. Haas. (2008). The Contribution of Parenting to Social Competencies and Positive Values in Middle School Youth: Positive Family Communication, Maintaining Standards, and Supportive Family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57(5), 591-601.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lau, G. L. (1988). Further exploring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284-297.
- Blustein, D. L. (1988). A canonical analysis of career choice crystallization and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297-300.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career exploration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0, 111-117.
- Blustein, D. L., Ellis, M. V., & Devenis, L. E. (198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s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342-378.
- Carl R. Rogers. (2009). 진정한 사람되기. 주은선 역. 학지사.
- David. L. Blustein, Luanna. E. Devenis, & Barbara A. Kidney.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6(2), 196-202.,
- Dietrich, J., & Kracke, B. (2009).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Available online 28.
- Donna J. Scott & A. Timoyhy Church. (2001). Separation/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cidedness and Commitment: Effects of Parental Divor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 328-347.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oqua, D. R., & Hartman, B. W. (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62, 27-29.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Jordaan, J. P. (1974). *Career commitment scale*. Unpublished research sale.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Jordaan, J. P., & Heyde, M. B. (1979). *Vocational maturity during the high school year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Marcia, J. E. (1993). *The relational roots of identity*. In

- J. Kroger (Ed.), *Discussions on ego identit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itchell, Stephen A., & Black, Margaret J. (2002). 프로이트 이후. 이재훈, 이해리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Mihaly Csikszentmihalyi. (2010). 몰입의 재발견. 김우열 역. 한국경제신문.
- Paul Schrodt. (2005). Family Communication Schemata and the Circumplex Model of Family Functioning.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69(4), 359-376.
- Savikas, M. L. (1985). Identity in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329-337.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Tide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Waterman, A. S. (1985). Identity in the context of adolescent psychology. In A. S. Waterman(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Whiston, S. C., & Keller, B. K. (2004). The influence of the family of origin on career development: A review and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493-568.
- 1 차원고접수 : 2014. 09. 28.
수정원고접수 : 2015. 02. 06.
최종게재결정 : 2015. 02. 07.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and Commitment to Their Career Choices:
The Mediation Effect of Ego Identity**

Ji-Ae Min

Kumlan Yu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this study, I have sought to explore the linkages among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ego identity, and commitment to their career choices. In particular, I have investigated whether college students' ego identi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and commitment to their career choices. To test my arguments, I have conducted a survey of college students from Seoul, and Gangwon and Jeju provinces. A final sample includes 308 students from the above regions. For my analysis, I have employed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SPSS 18.0. Additionally, I have conducted the Sobel test to test a mediation effect. I have found the positive and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parent-student communication, college students' commitment to their career choices, and college students' ego identity. Second, I have found the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tudent communication and college students' commitment to their career choices, between college students' ego identity and commitment to their career choices. Finally, I have found that college students' ego identi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tudent communication and college students' commitment to their career choices. I have discussed finding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in the final section.

Keywords : parent-student communication, ego identity, commitment to career choices